

(5) 高層 Hotel 의 防災對策

高層 Hotel 防災對策은 일단 火災가 發生할 경우 投宿客에게는 Hotel 이란 場所가 낯선곳이므로 당황하게 되고 이에 따른 Panic 및 混亂狀態가 惹起되기 쉬우며 火焰 및 연기·가스가 階段 및 升降기室 등을 通해서 빠르게 擴大되어 多數의 人命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關係로 建築 방화계획에서 이를 重要하게 計劃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Hotel 計劃에서 設計方針은 建築計劃에서는 Front office, Administrative Area, Rooming Area 등의 問題로 Hotel Block Plan 에서 Zoning 을 보통 Mechanical zoning (parking area 도 포함) Main Body Zone, Typical Rooming Zoning 으로 分化시켜 計劃하는 것이 基本的이다. 이중 Mechanical zoning 의 計劃은 수평과 수직으로 區分하여 水平일 경우는 建築機能을 살려 考慮하며 수직은 各 zoning 에 맞게 計劃하여 해결하는 것이 設計 process 方法이라 할 수 있다. Hotel 의 防災問題는 Mechanical 計劃의 一環으로서 平面計劃일 경우도 Building Core 가 있는 곳을 第 1 Zone, Corridor 및 비상 탈출구가 연결된 곳을 第 2 Zone, 그리고 Rooming Area 를 第 3 Zone 으로 區劃하여 各 Zone 사이에는 방화벽을 設置하는 것이며 수직 施設에서도 各層 Core 및 Duct, Schute 등은 各層마다 防災 Floor 로 Closed 하는 方法이 있다.

특히 Building Core 施設에는 Main stair 및 Elevator 를 防火壁으로 設置할 것이며 Elevator Hall 은 Smoke Tower를 設置하여 만약의 경우 가스 및 연기가 天井에서 Duct 를 通하여 또는 Wall 에서 Grill 을 通하여 Smoke Tower 에 연결하고 fan 으로 뽑아내므로서 火災時에 防煙設備로 시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를 減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建築材料 또한 防災 역할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염처리와 집기류의 不燃化, 반로니, 백연설비, 다스트슈트, 비상용승강기, 비상조명설비, 펄리포트 등의 설비를 갖추는 것이 基本計劃이 되겠다.

Hotel 火災對策에 관련하여 國內 Hotel 中 火災가 發生된 例를 보면 1971年 12月 25日 T Hotel이 크게 자극을 준 Hotel 中 하나로 들 수 있다. 당시 火災原因은 프로판가스라는 새로운 發火物에 對한 管理소홀에서 야기되어 사망 163명, 부상 63명 이었다. 以後 國內의 火災對策은 行政 강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 기억된다. 現在 이와 關聯된 기관은 소방본부와 서울시 건축국 및 각 구 도시정비국 그리고 韓國火災保險協會 등의 關聯되는 機關이 있다.

1971年前만 하더라도 소방에 關聯된 機關은 發生 事後 處理 行政으로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現在로서는 火災對策으로는 미연방지에서 사후대책으로 유도하는 行政으로 변천되고 있다.

지난 80年 서울시는 中區廳을 中心으로 火災對策 점검을 실시하였다. 方法으로는 建物を 찾아 지정하고 지정된 建物主는 圖面을 제시하되 現在의 狀況과 개수 現況設計를 모색하여 제출케 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都市整備委員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개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소방본부와 火

保 기관에 의뢰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機會에 本人이 참석하여 검토하였던 바 1971年 以前 서울에 建設된 高層 Office 및 Hotel 을 防火對策上 개수지시를 받지 않은 建物이 없었다. 심지어는 1970年代에 建設된 조선 Hotel도 개수가 불가피한 實情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비상탈출 및 Smoke Tower가 없고 Traffic Area가 모두 open system으로 된 때문이다.

이러한 高層建物이 一定期間中 火災對策에 걸려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점ियो. 따라서 國家的으로 行政處理가 어려워 질수밖에 없다. 이러한 建物들은 國內에 생존해 있는 作家에 의하여 이룬 建築일데는 더욱 그 展望된 점에서 실망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建築計劃에서 防火對策이라면 우리들의 建築은 理論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게될 建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을 그때 보아왔다.

그리고 행정 또한 서로 각각이여 이견이 분분하다. 이래서야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都市에서 火災對策이 제대로 될것인가 걱정스럽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경우에서 보면 인적 Fire Code가 만들어 지지 않았기에 모든 建築計劃에서 쑥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썽 앞으로 火災對策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나라와 같이 Fire Code를 빨리 마련하여 이것을 建設部나 소방본부나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서 같은 行政施行으로 시민이 보호되도록 하면 하는 생각이 들뿐이다.

大韓建築學會誌 25권 99호 81年 4月 p 60

〈防災 NEWS〉

- 情報 管理 教育 -

협회에서는 방재 시험소 설립과 병행,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재 자료의 정리와 최신 과학 기술 정보의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정보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센터(KORSTIC)에서 실시하는 「과학 기술 정보 관리」 및 「과학 기술 정보 관리 실무」교육에 「정경 1부 권오승」 대리와 「방재 연구부 최수민」 대리의 위탁 교육을 의뢰하여 '81년 4월 및 5월에 각 5일 간 정보관리에 필수적인 제 과정을 이수토록 한 바 있다.